



## 기술사 사기진작의 기반인 『기술사의 날』 제정, 황상모 고문

- 대담일시 : 2011년 5월 21일 11:00
- 장 소 : 한국기술사회 회장실
- 대 담 : 조한광(건축사공) 홍보위원, 송봉현 사무총장, 구수연 편집담당

한국기술사회 제18대(2001.03.01~2004.02.28) 회장을 역임하셨던 황상모 고문님은 건설안전·건축사공 기술사로서 기술사의 날 제정, 합동기술사사무소 제도 확정, EMF 정식 회원국 가입 등 화 발전을 꾀하신 분이시다. 황상모 고문님은 1962년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1981년 중앙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 1990년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공학석사, 1995년 명지대학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셨다. 고문님은 1962년 대한주택공사, 1965년 삼성그룹, 1975년 일본 다이세이건설주식회사를 거쳐 LG건설 기술본부장,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상임고문, 1998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을 역임하셨다. 또한, 1998년에는 동탑산업훈장을 수훈하신 분이시다.

**Q** 재임 시에 주요 활동사항과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회장 후보에 있었을 당시 공약사항으로 기술사회의 세계화에 대처한 경쟁력 확보, 투명한 경영으로 신뢰성 확보, 선거법 개선으로 기회손실 및 낭비저거 등 기술사회의 생산적인 경영을 꾀하기 위한 공약사항을 펼쳤고 재임 시 경영철학으로 지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재임 시에 활동사항으로는 첫째, 기존에 개인만 기술사

사무소만 개설할 수 있었던 것을 당시 과기부 김영환 장관의 입법으로 2002년 11월 9일 기술사법시행령 제6조의 2에 포함시켜 2인 이상의 기술사가 합동기술사사무소로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둘째, 제가 회장으로 당선될 당시만 하더라도 회장선거 제도가 기술사 회원이 전부 투표권자가 될 수 있는 직접선거제였지만 참여하는 기술사가 1,000여명이 넘는 등 투표과정이 복잡한 분위기에 있었지요. 지금의 간접

선거 즉 대의원제로 2003년 4월 24일 이사회에서 「대의원선출규정」을 의결해 현재까지 대의원에 의한 선거에 이르고 있습니다.

셋째, 2001년 12월 건설교통부로부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CM분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CM교육원을 전면적으로 확대 개편해 재임시에만 해도 건설사업관리전문가를 무려 1,300여명을 배출시켰습니다. APEC엔지니어와 EMF국제등록기술사 교육, 지금의 CPD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사종합교육기관」으로 발돋움시켰지요.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재임 시에 회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 고민을 하다가 회계법인에 경영진단을 받았습니니다. 그 결과 사무국 직원의 인사구조조정이 있어 마음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Q 기술사의 날(매년 2월 26일)을 제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2002년도 2월 28일에는 제38회 정기총회와 매년 2월 26일을 「기술사의 날」로 제정하는 선포식을 열었지요. 기술사의 단결과 화합의 장을 이룩,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지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공적이 우수한 기술사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하여 사기진작시키기 위함이었지요. 올해로 10회째가 되는 기술사의 날이 2월 26일이 된 에피소드를 말하자면 길어요. 2002년 2월에 열렸던 윤리위원회 및 회장단 합동회의에서 2월 16일로 정했으나, 2월 16일이 설날과 가까워 부적합하다고 결정하고 기술사법 제정일(1963년 11월 11일)과 제1회 기술사 배출일(1964년 12월 17일)은 각각 11월, 12월이 연말이라 부적절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지요. 정부로부터 회 설립인가를 받은 3월 15일을 검토했지만 3·15 부정선거로 역사적으로 불미스러운 날이라는 점을 감안해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대안으로 우리 회의 초대 회장 취임일(1965년 2월 26일)이 실질적으로 기술사회 업무를 시작한 날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 제1회 기술사의 날 제정·선포식

**Q 재임기간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2003년 10월에 열린 제33회 심포지엄은 강원도 속초에서 개최되었지요. 기술사 및 가족 175명이 참여했고, 김진선 강원도지사가 환영해 주었지요. 당시에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민들에게 써달라고 모은 성금을 전달하는 전달식도 가졌습니다. 특히 일본 분들이 사무국에서 준비한 강원도 양양산 “송이”를 좋아했던 기억이 나군요. 그리고 희망자에 한해 2박 3일간 금강산관광이 별도로 실시되어 구룡폭포, 만물상 등을 구경하였지요.

또 하나는 2001년 10월 12일 한국고속철도 중부사무소(충북 청원군 소재)를 방문해 2004년 한국고속철도 연제교 및 신호제어시스템 견학과 KTX시승식을 가졌습니다. 철도청장까지 나와서 KTX의 빠른 속도를 체험하며 경부고속철도 시험구간을 탑승하였던 기억도 나군요.

**Q EMF 정식 회원국 가입 및 미국기술사회(NSPE)와 MOU를 맺게 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2000년 6월 캐나다 밴쿠버 회의에 그 당시 심순보 국제협력위원장을 파견해 한국대표 자격으로 EMF (Engineer Mobility Forum) 창설을 위한 협정서와 양해각서에 공식서명함으로써 정식 회원국(Full Member)이 되었지요. 2001년 6월 20~25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EMF 회의에서 국제등록기술사제도 창설을 위한 협정서와 양해각서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EMF국제등록 기술사 한국대표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2002년 8월 14일에는 미국기술사회 하워드 블리트만(Howard Blitman) 회장과와의 양국 기술사간 심포지엄 개최 등 기술협력과 EMF, APEC엔지니어 국제등록기술사를 포함해 국제적 기술사의 통용성 및 이동성 보장을 위한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증제도와 관계되는 자격에 대해 상호협력기로 합의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지요. 미국기술사회와의 국제회의, 심포지엄 및 워크샵 등을 포함하는 상호협력기회를 지속적으로 갖도록 노력하고 APEC엔지니어와 EMF국제등록기술사를 포함하는 국제기술사 이동성 보장과 관계되는 자격문제에 대하여 상호 의견교환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지요.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AFFILIATION AGREEMENT**  
Between the Korean Professional Engineers Association (KPEA) and  
the National Society of Professional Engineers (NSPE)

WHEREAS, KPEA is an individual membership organization including individual professional engineers licensed in the United States and elsewhere and living in Korea;

WHEREAS, the NSPE Constitution Article IV establishes a basis for NSPE Board of Directors recognizing one organization as an Affiliated Group in any geographic location in the world where no recognized state authority laws exist upon written acceptance of the provisions of the NSPE Constitution;

WHEREFORE, BE IT RESOLVED THAT on October 5, 2002, the NSPE Board of Directors will vote to approve the NSPE as an NSPE Affiliated Group under the following terms and conditions:

- 1) A minimum of ten (10) licensed members shall be required for the formation, the chartering, and maintenance in good standing of such Affiliated Group;
- 2) NSPE encourages all eligible KPEA members to become NSPE members;
- 3) In all matters of local concern, the Affiliated Group shall have full autonomy but may call upon NSPE for advice, counsel, and assistance;
- 4) The Affiliated Group shall have no representation on the NSPE Board of Directors, but may attend all NSPE Board of Director Meetings;
- 5) The Affiliated Group shall be provided the same services by NSPE as are provided chapters of NSPE in their state or country;
- 6) KPEA and NSPE shall continually explore opportunities for mutual cooperation including international conferences, symposiums, and workshops to enhance the affiliation;
- 7) The NSPE Board of Directors may revoke the charter of the Affiliated Group if the Affiliated Group fails to conform to the NSPE Constitution after due and adequate notice has been provided to the Affiliated Group;
- 8) NSPE and KPEA shall communicate on recurring issues related to international mobility of professional engineers including APEC engineer and EMI International Registered Professional Engineers;
- 9) NSPE and KPEA shall communicate on FTA and WTO new issues relating to professional and technical services.

Signed this 14th day of August, 2002.

*Howard Blitman*  
Howard Blitman, NSPE  
President, National Society of Professional Engineers (NSPE)

*Changsoo Go*  
Changsoo Go  
President, Korean Professional Engineers Association (KPEA)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Affiliation Agreement has been developed as a result of preliminary discussions between NSPE President Howard Blitman and KPEA President Changsoo Go. NSPE Executive Director Charles A. Pridemore, NSPE Chapter Executive Director, Samuel Edward Andrus Sr. and International Relations Professional Engineers Association Representative Professor Moon Shik, Ph.D., Ph.D., held on May 22, 2002 at NSPE Headquarters in Alexandria, Virginia, USA and a subject to both approval and acceptance by the NSPE Board of Directors at its Regular Meeting.

Q 앞으로 한국기술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조언해 주십시오.

기술사회가 회원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니만큼 회원의 어려움을 알고 도울 수 있는 기술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회원센터를 만들어 누구든지 회원이 방문하면 사무를 볼 수 있고, 회원이 지방 등에서 서울로 출장왔을 때 업무를 얼마든지 볼 수 있는 회원이 다가가기에 편하게 다가오는 기술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Q 끝으로 기술사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술사는 연구 개발, 개인역량도 중요하지만 장인으로서는 책임있게 현장에서 판단력이 중요합니다. 이론과 실무가 일체가 되어야 진정한 기술사이지요. 자칫잘못하면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도 공부를 많이 해야되지만 현장실무를 익혀야 합니다. 기술사가 되었다고 자만하지 말고 더욱 책임감을 느껴 끊임 없는 자기개발, 자기개방, 계속적인 연구가 필수 덕목임을 명심하세요. 「기술사」라고 하면 온 국민이 존경할 수 있는 문화정착을 만들어 내는 것은 기술사 한 분 한 분입니다. 자기 자신을 과감하게 채찍질하여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데 주저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군요.



▲ 황상모 고문과 미국기술사회(NSPE) 하워드 블리트만 회장(上) 양국기술사회 양해각서(MOU) 체결 전문(下)

▲ 황상모 고문과 송봉현 사무총장(왼쪽), 조한광 기술사(오른쪽)